

『金匱要略』의 嘔吐噦下利에 대한 研究

李正勳·金容辰*

關於『金匱要略』之嘔吐噦下利的研究

李正勳·金容辰

大田大學校 韓醫科大學 醫史學教室

嘔吐의 病機爲 諸多原因所引起의 胃失和降而導致 胃氣上逆. 做辨證時可知 水飲內停의 嘔吐與 先嘔却渴者是 欲解의; 先渴却嘔者是水停心下; 而嘔家不渴者是心下有支飲. 治法爲: 對於 實熱證, 有大黃甘草湯證, 小柴胡湯證, 黃芩加半夏生薑湯證; 對於 虛寒證, 有大半夏湯證, 四逆湯證; 對於 寒熱錯雜證, 有半夏瀉心湯證; 對於 飲邪內停證, 有小半夏湯證, 半夏乾薑散證, 生薑半夏散證, 豬苓散證, 茯苓澤瀉湯證, 茱萸湯證等. 治療 禁忌爲: 嘔家若有 癰膿時, 不能治嘔; 欲吐者不能用下法. 豫後爲: 脾胃虛寒의 胃反者是 脈緊而澁, 若陰陽兩虛時, 將難治.

噦卽爲 呃逆, 其治則是: 若實證爲由 腑氣上衝所引起時, 應觀察其前後過程, 等知導哪個部位出現不利之後, 用利法時病情將會好轉. 在此, 橘皮湯證是由 寒邪客胃而致 胃氣上逆, 橘皮竹茹湯證是由 胃虛挾熱而致 胃氣上逆.

下利包括 泄瀉和痢疾. 這是因脾胃失運而喪失 傳導機能. 其治則是: 下利時因 脾虛濕困而氣機阻滯時宜利小便利. 其證治爲: 對於 實熱證, 有大承氣湯證, 小承氣湯證, 白頭翁湯證, 黃芩加半夏生薑湯證, 紫參湯證; 對於 虛寒證, 有四逆湯證, 通脈四逆湯證, 桃花湯證, 訶梨勒散證等. 治療 禁忌爲: 當虛寒下利挾有表邪時, 若裏虛較甚, 則不可發汗攻表. 豫後爲: 當實熱證利下之後, 若出現脈軟而靜時, 則即將好轉; 若出現脈大不靜時, 則病情遷延. 至於 虛寒證, 臟腑氣絕者의 豫後不良; 若 趺陽脈還在時, 說明胃氣尚有, 表示陽氣卽要恢復而病情將要好轉.

I. 緒論

嘔吐란 消化器系에서 技能的 또는 氣質의 病變으로 인해서 胃失和降하고 氣가 逆上되어 發하는 證狀이며, 이외에도 여러 종류의 疾患에서 附隨症狀으로써 자주 나타나며, 때로는 어떤 疾病의 豫告를 나타내기도 하는 주요한 病症이라고 하였다¹⁾. 嘔와 吐는 구별이 있는데, 有聲無物을 嘔라하

고 無聲有物을 吐라 하였다. 또 다른 설명에서는 嘔는 有聲有物을 의미하고, 乾嘔는 有聲無物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嘔吐의 대부분의 원인은 脾胃虛寒으로 收穀을 腐熟하지 못하는 까닭이다. 噦은 곧 呃逆이다. 이는 胃氣가 上逆하여 喉間에서 '呃呃'하며 소리가 나는데 자제를 못하는 것이다. 下利는 泄瀉와 痢疾을 포괄한다. 임상에서 이 두가지는 상호 전화하며 그 병변부위는 腸에 있다.

本篇은 『金匱要略』중 가장 많은 조문을 담고 있으며, 寒熱虛實의 변증치료에 대한 내용이 풍부하다. 熱證은 陽明과 有關하여 和胃降逆, 通腑祛邪의 治法을 사용하며; 虛證, 寒證은 太陰과 有關하여

*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사학교실
· 교신저자 : 김용진 · E-mail : king@dju.ac.kr
· 채택일 : 2004년 8월 5일.

1) 전국한의학대학교 비계내과학교수, 脾系內科學, 서울,

그린文化社, 1991. p. 83.

溫中祛寒, 補虛健脾의 治法을 사용한다. 그러나 本篇에서는 문맥의 의미가 잘 통하지 않는 부분이나 原文에서 가리키는 바가 분명치 않은 부분이 있어, 歷代 注家들의 注를 참고해가며 本篇을 辨證論治를 중심으로 연구하기로 하고 우선은 처방을 제외한 기본적인 理論部分을 먼저 연구하여 얻은 結果를 보고하는 바이다.

II. 研究方法

본 論文은 『金匱要略』의 原文 順序에 따라 篇을 나누었으며, 校勘·字句解·考察의 順序로 研究하였다.

가. 原文은 大星文化社에서 1984年度에 影印出版한 『仲景全書』를 底本으로 하였다.

나. 校勘과 字句解는 郭霽春과 王玉興이 編著한 『金匱要略校註語譯』(中國中醫藥出版社 1999)을 主要 參考로 하였다.

다. 字句解는 本文을 理解하는데 꼭 必要한 경우에 限하여 簡略하게 說明하였다.

라. 考察은 陳紀藩이 主編한 『金匱要略』(人民衛生出版社, 2002.)을 위주로 參考로 하였다.

마. 本文에 記載된 原文은 條文이라고 名稱하였다.

바. 본 論文에 使用한 符號는 引用文獻에는 ‘**『**’로, 脚注에는 1), 2), 3)으로, 校勘에는 ①, ②, ③으로, 字句解에는 ⑴, ⑵, ⑶ 등의 一連番號로 標記하였다.

III. 研究內容

‘原文’

夫嘔家有癰膿¹⁾不可治²⁾膿盡³⁾自愈

【解釋】

무릇 嘔症이 있는 사람이 癰膿이 있으면, 嘔症을 치료하는 것은 不可하니, 膿이 다하면 저절로 낫게 된다.

【校勘】

① 膿盡 : 『外臺』 ‘膿’위에 ‘其嘔’二字가 있다.

【字句解】

(1) 嘔家有癰膿 : 『傷寒論·厥陰篇』 375條 癰膿 아래에는 ‘者’字가 있다. ‘嘔家’는 평소 嘔病이 있는 者를 가리킨다. 안에 이미 癰이 생긴 경우처럼, 膿역시 嘔를 일으킬 수 있다. 이는 마땅히 穀, 水, 痰飲, 涎沫로 因한 嘔者와 더불어 상세하게 구별해야 誤治를 免한다. 『脈經』卷八第十四 ‘膿’아래 ‘者’字가 있다.

(2) 不可治嘔 : 『外臺』卷六『雜療嘔吐噦方』에 ‘治嘔’는 ‘療也’가 된다. 成無己는 “胃脘에 癰이 있으니, 膿을 嘔吐하면 治嘔는 不可하나, 得膿盡하면 嘔亦自愈한다.”라고 하였고, 尤怡는 “이는 癰膿으로 인한 嘔이니, 대략 止嘔하는 藥으로 治하는 것이 不可하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에서는 胃에 癰膿이 있어서 嘔吐에 이르게 하는 것에 대한 治法을 論술한 것이다. 嘔家は 항상 嘔吐를 겪어온 者를 가리키는데, 오랜 嘔吐에 病이 낫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嘔吐를 치료함에 있어서는 원래는 止嘔를 원칙으로 삼지만, 만약 오랜 嘔吐가 낫지 않은 原因이 癰膿熱毒이 內蘊於 胃로 인해서 胃失和降하게 된 것이라면 이때의 治療법은 마땅히 淸熱解毒, 化癰排膿을 원칙으로 삼고, 膿이 다하고 癰이 줄어들며, 熱이 맑아지고 毒이 제거되면 嘔吐를 치료하지 않아도 저절로 낫게 된다. “膿盡自愈”는 藥을 복용하지 않고 膿이 없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消腫排膿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張氏醫通』에서는 “輕者는 金匱排膿湯을 重者는 射干湯 혹은 犀角地黃湯에 忍冬, 連翹를 가하는데, 이는 因勢利導法이다.”라고 하였다.

胃癰은 胃中에 발생한 膿瘡를 말한다. 歷代文獻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보면 상당한 오랜시간 동안에 항상 보이는 病으로, 지금은 아주 보기 드문 질병이다. 古人이 이 질병의 증후를 묘사한 것을 보면, 이 질병은 아마도 上腹壁膿腫(胃腸癰이라고 칭함) 또는 急性化膿性胃炎(胃癰이라고 칭함)등에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治病은 마땅히 審證求因하여 질병의 근본을 치료하는 것이다. 嘔吐는 비록 모두 胃氣上逆과 關

계가 있으나, 胃氣上逆을 일으키는 원인 또한 여러 가지이다. 예를 들어 積飲停으로 인하거나, 積食積으로 말미암아, 成癰化膿이 되거나, 積寒胃熱에 연관되거나, 積肝膽脾胃 등 臟腑의 기능손상으로 인한 원인 등 이러한 종류들은 한가지로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治療時에 嘔吐한다고 해서 止嘔할 것만 아니라 마땅히 病情을 근거로 해서 辨證論治해야 하며 때로는 심지어 催吐法으로 치료해야한다.

本條는 『外臺』에서 仲景 『傷寒論』을 인용하여 “무릇 嘔家が 본래 癰膿이 있는 것은 치료하는 것은 불가하고, 久膿이 다하면 自癒한다.”라고 하였다.

本條는 또한 『傷寒論』 厥陰病篇 376條에서도 보인다.

『原文 2』

先嘔却渴者¹는 此爲欲解² 先渴却嘔者³는 爲水停心下⁴ 此屬飲家⁵ 嘔家本渴⁶이⁷ 今反不渴者⁸는 以心下有支飲故也⁹이니 此屬支飲¹⁰이라

【解釋】

먼저 嘔하고 渴하는 것은 이는 풀릴려는 것이오, 먼저 渴하고 嘔하는 것은 水가 心下에 停留한 것이니 이는 飲家에 속한다.

【校勘】

① 却渴：『外臺』卷六 『雜療嘔吐噦方』에는 ‘後渴’로 되어있는데 옳다.

② 先渴却嘔：本書 『痰飲篇』에 ‘却’은 ‘後’字가 되니, 應하여 依據하여 고친다.

③ 嘔家本渴, 今反不渴：本節은 脫誤字를 많이 較正하였다. 이미 『痰飲篇』의 誤字는, ‘不’이 ‘本’이 된 것, 또 脫字는 ‘本渴’ 二字를 이에 답습했다. ‘今反不渴’로써 윗 문장 誤字인 ‘本渴’을 바로 붙였다. 그래서 『千金』과 對勘 하지 않으면 쉽게 가르쳐 이해하기 어렵다. 지금 기록된 『千金』卷十八第六의 문장 아래에서, 이로써 편하게 연구 학습한다. “嘔家は 本渴하니, 渴者는 爲欲解이다. ; 本渴은 지금 반대로 不渴이니, 心下에 支飲이 있는 까

답이니, 小半夏湯主之이다.”

【字句解】

(1) 此爲欲解：尤怡는 “先嘔後渴者는, 痰水가 이미 去하고, 胃陽이 장차 회복되니, 故曰 此爲欲解이다.”라고 하였다.

(2) 心下：仲景은 무릇, 心下는 대부분 胃部를 가리켜 말한다고 하였다.

(3) 此屬飲家：尤怡는 “熱로 因한 飲水가 過多하니, 熱이 비록 풀려도 飲이 旋積한다. 여기에서의 嘔는 積飲으로 因한 所致이니, 그러므로 此屬飲家라고 말한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에서는 水飲內停으로 인하여 嘔吐에 이르는 辨證方法을 논술하였다. 원문에서는 先嘔後渴, 先渴後嘔, 嘔而不渴 3가지 정황으로부터 嘔渴의 특징으로써 嘔吐의 진행에 대하여 辨證하는 것을 말한다. 嘔吐後에 嘔渴증상이 나타나는 것은 病이 장차 호전됨을 예고한 것이다. 이것은 嘔吐를 일으키는 원인이 胃에 停飲이 있어서이며 嘔吐로 하여금 水飲이 모두 사라져 胃陽이 회복되기 때문이다.

先渴却嘔의 渴은 胃에 停飲이 있어서 氣化가 막힘을 받아 氣가 津을 化하지 못하여 津이 올라가지 못하여 일어나는 증상으로 病人이 煩渴을 느껴 引飲하게 되고 飲한 후에 또다시 飲邪를 가중하여서 逆하여 上出하기 때문에 飲後에 吐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오랜 嘔吐에도 낫지 않은 사람은 대부분 津液을 耗傷하게 되므로 嘔渴증상을 보이는 것이다. 지금 久病嘔吐하나 嘔渴하지 않은 이유는 胃의 停飲으로 和降을 잃어서 생기기 때문이다. 여기의 ‘支飲’은 飲邪가 지탱하는 것을 가리키며 四飲중의 支飲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은 여기서 口渴을 통해서 상계되어 나타나는 痰飲嘔吐에 대해 진행되는 변증법은 단지 변증방법중의 한가지 일 뿐이지 절대적인 방법은 아니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仲景이 本篇 18條 原文에서 “吐而渴欲引水者 茯苓澤瀉湯主之”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 陰邪內停 또한 先嘔後渴한 증상을 나타낼 수 있다고 하였고 병이 낫

고 있다고는 제시하지 않았다. 임상에서는 이러한 증상은 嘔吐하되 淸稀痰涎을 토하고 口渴하나 飲하면 즉시 토하고 혹은 渴하나 多飲하고 싶지 않은 특징을 갖고 있다고 한다. 이때 小半夏湯, 小半夏加茯苓을 사용하여 치료한다. 『金匱』痰飲篇 28, 30, 41條와 더불어 연구할 수 있다.

本條의 ‘先嘔却渴’, ‘先渴却嘔’의 ‘却’字는 本書 “痰飲病篇”에서는 ‘後’字로 되어있다. ‘此屬支飲’ 아래에서 『外臺』에서 仲景 『傷寒論』細注를 인용하여 “仲景의 雜方으로, 이 證은 마땅히 小半夏加澤芩湯을 사용한다.”라고 하였다.

『原文』

病人脈數¹나 數爲熱²也 當消穀引食³ 而反吐者⁴ 何也⁵ 師曰 以發其汗⁶ 則令陽微⁷나 膈氣虛⁸ 나 脈乃數⁹ 이라 數爲客熱¹⁰ 이니 不能消穀¹¹는 胃中虛冷故也¹² 心下¹³ 脈弦者¹⁴는 虛也¹⁵ 나 胃氣無餘¹⁶라 朝食暮吐¹⁷는 變爲胃反¹⁸ 나 寒在于上¹⁹이로되 醫反下之²⁰ 나 今脈反弦²¹이라 故名曰虛²²라

【解釋】

病人的 脈이 數하니, 數은 熱이되고, 마땅히 穀食을 消化시키고 먹은 것이 땅기게 된다. 그러나, 도리어 토하게 되는 것은 어찌된 것인가? 스승이 發汗해서 陽이 微弱하고 膈氣가 虛하니 脈이 數하게 된다고 하였다. 數은 客熱이니 消穀시키지 못하는 것은 胃中이 虛冷한 까닭이다. 脈弦은 虛하니 胃氣가 餘分이 없음이다. 아침에 먹고 저녁에 토하는 것은 變하여 胃反이 되니, 寒이 上에 있게 되니 醫師가 도리어 瀉下시켜 脈이 도리어 弦이 된다. 그러므로 弦이라 말한다.

【校勘】

① 以發其汗 : 『傷寒論』122條는 ‘此以發汗’으로 되어있다. ‘以’는 因이니, 發汗으로 因하여 太陽之氣가 傷한 것이다.

② 胃中虛冷故也 : 『傷寒論』『脈經』卷八第十四 ‘故’아래 나란히 ‘吐’字가 있다. 按컨대 ‘故吐’는 위의 ‘反吐’와 相對하여, 應하고 依據하여 補完한다.

③ 今 : 의심컨데 당연히 ‘令’이 된다. ‘今’ ‘令’은 形近하여 易混된다. 俞橋本·吉野本·享和本 均히 ‘令’이 된다. 尤注本, 黃注本 같다.

【字句解】

(1) 引食 : 음식을 끊지 못함을 이른다. 『後漢書·班彪傳下』李注 : “引, 續也.”

(2) 而反吐者何也 : 一般論으론 數脈은 主熱이 되어, 熱은 能히 化食하나, 이는 虛 역시 脈數이 될 수 있음을 몰랐기 때문에 이 疑問이 생긴 것이다.

(3) 今陽微, 膈氣虛 : 唐宗海는 “發汗이 지나쳐 太陽之氣를 傷하여 微弱하게 하여 胸膈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게 되는데, 胸膈과 心包가 相連하게 되니 胸膈에 충분히 도달하지 않아 膈氣가 虛해진다.”라고 하였다.

(4) 脈乃數 : 唐宗海는 “사람의 脈은 모두 心包에 應하여 움직이니, 胸膈이 虛하면 움직여 心包에 미치지, 脈이 不靖하고 數한데 이른다.”라고 하였다.

(5) 數爲客熱 : 尤怡는 “客熱은 客氣가 기댄 것으로 오래지 않은 즉 흠어지니, 그래서 消穀할 수 없다.”라고 하였고, 唐宗海는 “客熱이 膈中에 있고 胃中에 없으면 이내 胃中이 虛冷해지니, 그래서 脈數해지니 消穀할 수 없다.”라고 하였다.

(6) 脈弦者虛也 : 魏荔彤은 “弦者는 緊이다. 緊은 寒이 된다. 바로 胃陽虛氣冷의 증거다. ;또 弦者는 木象이니, 胃脈이 最忌하는 것이므로, 이는 木勝侮土이다.”라고 하였다.

(7) 胃反 : 『總錄』卷四十七 『胃反』에서 “胃中虛脹은 其氣衝上하여 食久飯出하니 이름하여 胃反이다.”라고 하였다.

(8) 寒在于上, 醫反下之 : 陽明燥實은 可以攻下하다. 胃氣虛寒은 嘔吐를 發生하니, 다만 溫中祛寒이 可한데, 만약 反下之면 다시 虛를 虛하게 하니, 脈이 곧 弦해지고, 그 緩和敦厚之象을 잃는다. 그래서 尤怡는 “數脈 弦脈, 고르게 虛候가 있다.”라고 하였으니, 이 말을 믿을만 하다.

【考察】

本條에서는 虛寒胃反의 病機를 논술하였다. 제 1 소절은 誤汗이 胃陽不足에 이르게 하여 胃反이 되는 것을 논술하였다. 病人이 비록 脈數하나 消穀引食하지 못하는 것에서, 이런 종류의 數脈은 眞熱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假熱, 즉 소위

‘客熱’의 證이다. 이는 醫師가 汗法을 誤用하여 陽氣를 損傷하여 胃氣가 虛寒하게 되어 虛陽이 浮越한 까닭이다. 그 脈은 數하고 無力하다.

제 2소절은 下法을 誤用하여 胃陽不足에 이르게 하여 胃反이 되는 것을 논술하였다. 虛陽浮越하고 脈數한 것을 의사가 裏實熱證으로 여겨 苦寒한 약으로 攻下시켜 胃陽을 다시 損傷시킨 것이다. 土가 虛하면 木이 乘한다. 고로 弦脈이 나타나는데 이 弦脈은 반드시 無力할 것이다. 胃陽이 不足하면 水穀을 腐熟할 수 없어 형성된 朝食暮吐, 暮食朝吐, 宿穀不化가 胃反의 특징이 된다.

本條는 胃反의 病機가 胃氣虛寒으로 인해 腐熟할 수 없는 것에 요지가 있고 誤治는 단지 發病원인중 하나일 뿐임을 설명한다. 동시에 사람을 단순히 脈診으로써 다 알 수는 없고 臆當 脈과 證을 서로 참고하여 脈과 病因을 결합하여 方이 완전하게 되는 것이다.

‘原文 4’

寸口脈微而數⁴ 아니 微則無氣⁵ 하고 無氣則榮虛⁶이며 榮虛則血不足⁷하고 血不足則胸中冷⁸이라

【解釋】

寸口脈이 微數하니, 微는 氣가 없음이요, 氣가 없음은 榮이 虛함이요, 榮이 虛함은 血이 不足하고, 血이 不足하면 胸中이 冷한 것이다.

【校勘】

① 寸口脈微而數 : 吳考槃은 “微’는 ‘數’을 遺한다. 이는 간단히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였고, 吳는 ‘微則無氣’, 인데 어찌 無數인가, 분명히 이는 脫漏가 있을 것이라고 하였다.

【字句解】

(1) 微則無氣 : 脈微는 胃陽氣虛를 일컫음이다. 虛則不能腐熟水穀이니, 故로 營養이 차이나고 榮氣 역시 虛해진다. 朱光被는 “此條는 胃中虛冷의 所由然을 追原한 것이다. 대개 中部虛冷이니, 上焦榮衛之氣가 不先虛한 것은 있지 않다. 故로 必先取之寸口한다.”라고 하였다.

(2) 血不足則胸中冷 : 血不足이면 循環失常이니, 心火가 胸中에 不能布하여, ‘胸中冷’에 이른다. 이는 所謂 ‘寒在于上’의 原因이 된다.

【考察】

本條에서는 寸口脈 微數이 주로 胸中冷임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寸口는 양손의 寸關尺三部를 말하는 것이다. 脈이 微하고 數한 것은 脈象이 빠르고 無力한 것을 가리킨다. 이는 寸口로부터 진단하여 얻은 것으로, 前條의 胃中虛冷외에도 胸中寒冷, 宗氣不足, 衛氣營血虛少 등 역시 주요 원인들 중 하나이다.

本條와 前條를 서로 참고하여 보면, 모두 寸口脈이 數하고 無力하는데, 이는 주로 中陽不足하여 虛寒胃反하는 것을 가리키며, 또한 주로 宗氣不足하여 나타나는 胸中寒冷을 가리킨다. 이때에는 다시 病인의 趺陽脈의 변화를 살펴보는 것이 진단에 도움이 된다.

本條에 대해서는 명확한 설명은 없으나, 本條의 해석에 대해 많은 注家들이 모두 虛寒胃反에 이르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胃氣虛寒하면 不能消穀하고 氣血化生이 不足해지고 이에 營衛氣血이 모두 虛하고, 胸中の 宗氣의 영향을 끼쳐, 이에 胸中寒冷의 症狀가 나타나는 것이다. 또한 注家들은 本條에 錯簡闕文이 있다고 하는데 참고할 만하다.

‘原文 5’

趺陽脈浮而澀⁹이니 浮則爲虛¹⁰ 하고 澀則傷脾¹¹ 하며 脾傷則不磨¹² 하여 朝食暮吐¹³ 아니 暮食朝吐¹⁴는 宿穀不化¹⁵이니 名曰胃反¹⁶이라 脈緊而澀¹⁷ 하면 其病難治¹⁸라

【解釋】

趺陽脈이 浮澀하니, 浮는 虛가 되고, 虛는 傷脾하니, 脾가 傷하면 갈지 못해서 아침에 먹으면 저녁에 吐하니, 저녁에 먹으면 아침에 吐하는 것은 宿食이 消化되지 않은 것이니, 이름하여 胃反이라 한다. 脈緊澀하면 그 病은 難治이다.

【校勘】

① 澀則傷脾 : ‘澀’은 俞橋本·清初本·享和本·新刻本에 ‘虛’字로 되어 있고, 徐注本·魏主本은 같다.

按 : '虛'는 不음이 되니, '澁則'은 이에 위를 나누어 이으니 '浮而澁'을 말한다. 그리고 '虛'가 된다. 즉 위에 더불어 타는 것이다. 故로 吳謙은 역시 '澁'이 된다고 일컬으니 이것이다.

【字句解】

(1) 趺陽脈 : 徐彬은 “趺陽脈은 脾胃脈이다” 按 : 仲景은 趺陽脈이 다들 胃로 말하는데, 발을 잡는게 능사가 아니다 라고 말하였다.

(2) 浮則爲虛 : 按 : 『傷寒論·辨脈法』“脈浮爲虛”라는 문장의 成無己注에 “趺陽脈浮爲噎”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의 '浮'는 中氣不足을 가리키니, 脈이 不堅實이다. 故로 虛라고 말하였고, 惡風惡寒發熱이 아니어도 太陽病之浮가 있으니, 一論에 執할 수 없다.

(3) 脾傷則不磨 : 唐宗海는 “脾는 陽土가 되어 主潤以和穀하니, 脈澁則陰液虛이면 不能濡化穀食한다.”라고 하였다. 생각해 보면 '磨'는 『說文』에선 '石磨'로 되어, 磨穀成面의 뜻이 있으니, 脾는 運化食物을 主하여, 故로 借以喩之하였다.

(4) 朝食暮吐, 暮食朝吐 : 尤怡는 “朝食者는 暮當下고, 暮食者는 朝當下니, 若穀不化면, 則不得下고, 不得下면, 必反而上出이다.”라고 하였다.

(5) 脈緊而澁 : 陳念祖는 “邪甚而緊하여, 液竭而澁이면, 其病難治이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에서는 胃反의 病機, 脈證, 그리고 豫後에 관하여 다시 논술하고 있다. 趺陽脈은 脾胃之氣를 살핀다. 脾主升하고 胃主降; 脾主運하고 胃主納한다. 故로 趺陽脈은 浮, 數 모두 不當하다. 만일 浮가 不當한데 浮하다면, 胃陽虛浮로 胃失和降하여서 故로 浮則爲虛라고 말한 것을 설명한다. 澁이 不當한데 澁하다면 脾陽不足으로 脾失健運하여 故로 澁則傷脾라고 한 것이다. 脾胃兩虛하여 水穀을 腐熟하여 精微를 健運을 하지 못해서 反而上出되어 형성된 朝食暮吐, 暮食朝吐, 宿穀不化가 胃反의 특징이 된다.

胃反病은 脈緊而澁이 나타나는데 緊은 주로 虛寒을 나타내며 澁은 津虧를 주로 나타낸다. 이는 病의 後期에 脾胃가 虛寒이나 寒而燥로 인한 陰陽

兩虛의 證候를 나타내는 것으로 病情이 비교적 重해, 치료하기가 艱難하므로 難治라 한다.

本病은 幽門部의 梗阻, 胃痞, 神經性 嘔吐 등에 서 많이 나타난다. 그 脈은 澁하여 津虧하고 脾陰不足이 腸中乾燥로 많이 표현된다. 大便이 乾結하고 量이 적어 羊의 변과 같은 증상이 많이 나타난다.

『原文 6』

病人欲吐者는 不可下之 4

【解釋】

病人이 吐하려고 하는 경우에 瀉下시키는 것은 不可하다.

【字句解】

(1) 病人欲吐者, 不可下之 : 魏荔彤은 “病人欲吐者는 氣逆上衝이다. 예컨대 不可吐면 則順氣止逆吐之하고, 斷不可誤爲攻下이니, 逆其性而折之하여, 邪로 하여금 사람의 깊은 곳에 머물게 해 치료하는데 어렵게 한다.”라고 하였다. 생각해 보면 여기 吐는 概言이며, 胃反만을 지칭하는게 아니다. 『傷寒論』204條에 “傷寒嘔多, 雖有陽明症, 不可攻之.”라고 하였으니, 이는 傷寒嘔吐를 說明한 것으로, 역시 不可妄下하며, 仲景이 이에 勤求古訓한 것이며, 『素問·陰陽應相對論』에 “其高者因而越之.”라고 하였으니, 다른 것도 이 一法則을 秉承하니, 傷寒雜病은 말할 것 없이, 病吐者에 對하여 모두 要慎히 下하라.

【考察】

本條는 治吐에 있어서도 因勢利導하여야 함을 논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하면, 病者가 吐하려고 하는 것은 病이 上에 있는 것으로써 正氣가 邪를 밖으로 배출하려는 반응이다. 이 때는 응당 『素問 陰陽應象大論』에서 “其高者 因而越之”의 治則에 근거하여 因勢利導하여 吐法을 채용하여 病邪가 입을 통해 밖으로 나오게 하여 치료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중요하게 제시하고 있는 것은 本 治法

의 운용은 마땅히 辨證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만약 腑氣不通이나 濁氣上衝으로 말미암아 病人이 吐하는 것은 본 법에 구애될 필요가 없이 마땅히 下法을 써야한다. 本篇과 17條에서 “食而即吐者 大黃甘草湯主之”라고 한 뜻을 참고하여야 한다. 本條의 주된 의미는 因勢利導하여 邪氣로 하여금 제거되는 도중에 있으면 낫는다는 원칙을 강조하는데 있다. 宿食病篇 24條 “宿食在上脘 當吐之”, 痰飲病篇 18條 “病者脈伏 其人欲自利 而反快 …… 甘遂半夏湯主之” 同篇 23條 “病溢飲者 當發其汗” 등은 모두 이 原則의 발현이다.

『原文 7』

噦而腹滿^㉑ 視其前後^㉒ 知何部^㉓ 不利^㉔ 利之則愈^㉕

【解釋】

噦하면서 배가 그득한 것은 그 大小便을 살펴보고서 어느 곳이 不利한지 알게되어서 그것을 利시키면 곧 낫게된다.

【校勘】

① 噦而腹滿：徐彬은 “噦字는 ‘嘔’字인 것 같다. 已下數條는 모두 嘔를 논하니, 여기의 首條는 嘔를 논한 것 같다. 吐嘔는 본래 相類이니, 吐者禁下이며, 嘔而腹滿이니, 則 또한 利가 마땅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② 視：『玉函』에선 ‘問’字가 된다.

【字句解】

(1) 前後：徐彬은 “前後는 大小便이다.”라고 하였다.

(2) 部：部位.

(3) 利之則愈：魏荔彤은 “前部不利는, 水邪가 逆한 것이고, 마땅히 小便을 利하며; 後部不利는, 熱邪가 實함이고, 마땅히 大便을 利하니, 噦則愈이다.”라고 하였고, 朱肱은 “前部不利는, 豬苓湯이다. 後部不利는, 調胃承氣湯이다.”라고 하였고, 吳賡은 “陽明實熱의 噦는 下之하고, 理氣得通則止이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는 實證에 속하는 噦의 辨證과 治療를 논술하고 있다. 噦은 虛實證의 구별이 있는데 本條의 噦은 實證은 소치인 腹滿이 함께 나타나므로 通利之法을 써야한다. 腹部에 病邪停聚가 있어 腑氣가 不通하고 逆而上衝하여 고로 噦이 나타난다. 여기에서 腑의 담긴 뜻은 둘이다: 하나는 膀胱이고 하나는 陽明腸腑이다. 어느 臟腑가 不通한 것인지 辨別하는 방법 중 하나는 病人의 大小便 정황을 보는 것이다. 만약 小便不利하다면 이 噦은 水濕阻滯, 氣機不利의 소치인 것이다. 만약 大便不利하다면 裏實積滯와 腸腑不通의 소치이다. 治法도 이에 상응하여 前者는 마땅히 通利小便을 治法으로 하고 後者는 마땅히 通腑清腸으로 治하여야 한다. 腑氣가 通하면 濁氣가 降하여 噦逆은 자연히 사라진다. 本條의 구체적인 處方에 관해서는 朱肱이 “前部不利豬苓湯 後部下利調胃承氣湯”이라고 말한 것을 참고할만하다.

噦이 가리키는 것에 관해서는 唐末이래로 孫思邈 등은 咳逆을 噦로 여기고; 劉河間 등은 乾嘔를 噦로 여기고; 聖惠方 등은 噦氣를 噦로 여기는데 모두 부족한 설명이다. 『景岳全書』에서 이르기를 “噦은 呃逆이 이지, 咳逆이 아니다. 咳逆은 咳嗽가甚해진 것이지, 呃逆이 아니다. 乾嘔는 無物之吐로 곧 嘔이지, 噦이 아니다. 噦는 飽食하고 숨쉬는 것, 곧 噦氣이지, 咳逆이 아니다. 後人이 이를 귀감으로 하면 의문되는 점이 설명이 될 것이다.” 呃逆은 臨床의으로 痰呃, 氣呃, 熱呃, 虛呃 등이 있고 本篇에서 주로 논한 것은 氣呃, 熱呃이다.

『原文 8』

夫六腑氣絕于外者^㉑ 手足寒 上氣 脚縮^㉒ 五臟氣絕于內者^㉓ 是利不禁^㉔ 下甚者^㉕ 手足不仁^㉖ 也

【解釋】

무릇 六腑의 氣가 外部에서 끊어진 경우에는 手足이 차고, 氣가 上衝하며 다리가 오그라들고, 五臟의 氣가 內部에서 끊어진 경우에는 泄瀉가 그치지 않고 심할 경우에는 手足이 痲痺된다.

【校勘】

① 夫：『千金』卷15第7에는 ‘凡’字로 되어있다.

② 利不禁：『脈經』卷8第14에는 ‘下利不禁’으로 되어있다. 『千金』에는 ‘下不自禁’으로 되어있다. 『註解傷寒論』卷6 第12에는 成無己의 註를 인용하여 ‘利下’로 되어있다.

【字句解】

(1) 六腑之氣絶于外者：朱光被는 “六腑는 陽이 되는데 陽은 주로 衛外하여 手足을 운행시켜 三焦를 소통시킨다. 六腑가 邪를 받으면 外의 氣機가 不利해져서 이로 말미암아 手足惡寒이 생기고 上氣脚縮하는데 이는 陽鬱이 不伸한 소치이다.”라고 하였고, 葉霖은 “氣絶은 우연히 虛하여 不運한 것이지, 脫絶을 일컬음이 아니다. 어찌 脫絶을 고치는 의사가 있을 수 있는가?”라고 하였다.

(2) 上氣：氣短, 呼吸促迫을 일컬음이다.

(3) 五臟氣絶于內者：朱光被는 “五臟은 陰에 속한다. 陰은 주로 內守하여 臟이 진실로 邪氣를 받으면 內守하는 眞元이 不固하여 이로 말미암아 下利不禁하게 되는데 腎은 이완된 것을 잡아준다. 더욱 심해지면 手足不仁이 생기는데 일찍이 榮이 虧하여 四肢를 不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다.

(4) 手足不仁：徐彬은 “不仁은 굽혔다 폈다를 못하는 것을 일컬음이다.”라고 하였고, 尤怡는 陰이 陽과 만나지 못해 마침내 痺閉하여 手足不仁이 된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는 嘔吐, 噦, 下利臟腑 ‘虛絶’의 病機 및 症候의 表現에 대해 총체적으로 논술하였다. 六腑는 陽에 속하며 陽은 주로 衛外하며, 胃를 本으로 한다. 胃陽이 虛衰하여 和降을 잃으면 嘔, 噦하게 된다; 四末에 通達할 수 없으면 手足이 寒冷하게 된다; 筋脉이 溫煦함을 잃게 되면 蹠臥脚縮하게 된다. 동시에 上焦가 中焦로부터 受氣하였기 때문에 胃陽의 虛衰는 上焦宗氣로 하여금 不足하게 하여 上氣喘促하는 象이 나타나게 된다.

五臟은 陰에 속하며 陰은 內守를 主하고, 脾를 後天의 本으로 삼는다. 腎은 先天의 本으로 삼는

다. 脾虛하여 失運하면 清氣가 下陷하여 下利가 不禁한다. 久病이 腎에 미치면 腎陽이 또한 衰하여 下利가 더욱 심해진다. 下利가 너무 심하면 陰液이 따라서 不足해지고 陽이 溫煦하지 않으면 陰이 濡養하지 못해서 手足이 麻木不仁하게 된다.

本條에서는 嘔, 噦, 下利 세가지 病에 대한 臟腑 虛絶證의 病機와 主要症候의 表現을 논술하였다. 脾(胃)腎은 嘔, 噦, 下利의 세가지 病의 後期의 중요한 작용을 하였음을 강조하였다. 여기에서의 “六腑氣絶於外”와 “五臟氣絶于內”는 두가지 병증을 분할하지 않았고, 五臟六腑는 다 모두 ‘氣絶’한 것이다. 中醫臟腑辨證의 특징중 하나는 臟과 腑사이의 表裏配合관계와 臟腑間을 거치는 각각의 소속된 經絡의 취득관계, 아울러 五體七竅가 서로 관련되어 絡하는 것인데 이는 인체구성의 對立과 統一의 整體性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여기에서의 “手足寒, 上氣, 脚縮”은 胃陽不足하고 脾陽이 健旺함을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利不禁, 手足不仁” 역시 腎陽虛(『心典』, 『金鑿』, 高等中醫院敎敎學參考叢書, 『金匱要略』등) 胃腑, 腸腑, 심하면 脾臟의 기능이 정상에 이음을 이해할 수 없다.

‘原文 9’

下利 脈沉弦者^①는 下重^②하고 脈大者^③는 爲未止^④나 脈微弱數者^⑤는 爲欲自止^⑥나 雖發熱不死^⑦나

【解釋】

泄瀉하고 脈이 沈弦한 경우에는 아래가 묵직하며 脈이 大하면 아직 그치지 않은 것이다. 脈이 微弱數한 경우에는 저절로 그치려고 하는 것이니 비록 發熱하여도 죽지는 않는다.

【校勘】

① 脈大：『脈經』卷8 第14, 『病源』卷8 『傷寒利喉』, 『千金』卷5 第7 ‘脈’字 위에 ‘其’字가 같이 있다. 『素問·脈要精微論』에 “大則病進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아래에는 “病이 未止라고 하였다.”

② 脈微弱數：『病源』‘微’뒤에 또 ‘弱’字가 없다. 按：脈이 微數을 보이면 이는 邪熱이 이미 물러갔으며 眞陽이 장차 회복될 것임을 말한다. 그래

서 아래에 ‘欲自止’라고 돼 있다.

【字句解】

(1) 下利：古人들이 下利라고 일컫는 것은 泄瀉와 痢疾 두 병을 포괄하는 말이다. 本條는 痢를 일컫는 것이다. 아래 글의 ‘下重’으로 증명할 수 있다.

(2) 脈沈弦：沈은 裏를 말하고 弦은 急을 말하는 것이다. 滯下의 症은 裏急後重의 증상이 많이 보이며 脈은 證과 應하기에 沈弦하다.

(3) 雖發熱不死：柯琴은 “熱이 裏에서 外로 나가 陰에서 陽으로 出한다. 그래서 不死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에서는 脈象을 근거로 痢疾의 病情과 예후를 판단하였다. 脈沈은 裏를 主하고, 脈弦은 痛을 主하고, 下利하며 脈이 沈弦하면 病邪가 裏에 있어서, 氣機가 不暢하여 傳導가 失常한 까닭에 膿血을 痢하며, 赤白이 서로 섞이고 滯下가 시원하지 않고 裏急後重하며 腹中疼痛한다. 下利하며 脈大하면 大함은 邪氣가 盛하여 正氣와 邪氣가 交爭의 象이므로 여기에서의 大는 반드시 大하면서 有力한 것이고 邪氣가 이미 盛하면 痢疾은 오히려 發作期(暴痢)에 있고 곧 나올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爲未止’라고 한 것이다; 下利하면서 脈이 微弱數한 것은 微弱은 無力한 象이고, 비록 正氣가 不足하나 邪氣 또한 衰한 것으로, 脈數은 곧 남은 邪氣가 未盡한 象이다. 이때에는 이미 진입한 病的 恢復期이며, 적극적 치료를 거쳐서 快하면 곧 나올 것이다. 고로 “爲欲自止, 雖發熱不死”라 하였다. 이 文章에서 필요로 제출한 것은 이것으로, 痢疾病人의 赤白下利, 滯下不爽, 裏急後重, 腹中疼痛, 身熱, 脈實有力하는데 이때 비록 急切하여 완전히 나올 수는 없고 일정한 예후도 不良(急性泄瀉 또한 이와같다)하며 下利에 脈大無力함은 恢復期에 보이는 ‘欲自止’외에도 外部로 陽이 亡하고, 內部로 陰이 亡하는 重證, 危證이 또한 이를 수 있으니 구별에 주의하여야 한다.

‘原文 10’

下利¹⁰ 手足厥冷 無脈者¹¹ 灸之不溫¹² 若脈不還¹³ 反微喘者¹⁴ 是死¹⁵ 少陰負趺陽者¹⁶ 爲順也¹⁷

【解釋】

泄瀉에 手足이 厥冷하며 脈이 없는 경우에는 嘔을 떠도 따뜻해지지 않는다. 만약 脈이 돌아오지 않고 도리어 微喘한 경우에는 죽는다. 少陰이 趺陽을 負할 경우에는 順이 된다.

【校勘】

① 手足厥冷：『脈經』卷8 第14, 『病源』卷7, 『翼方』卷10, 『傷寒總病論』卷2

아래에 ‘冷’字가 없다. 陳念祖는 “下利, 手足厥冷은 陽이 陷하여 手足으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② 無脈者：『脈經』, 『翼方』 ‘脈’ 아래에 ‘者’字가 없다.

【字句解】

(1) 灸之不溫：經文에는 灸할 穴을 밝히지 않았다. 常器之는 “關元, 氣海 二穴에 灸해야 한다.”라고 하였다. 생각해 보면 비슷하게 足三里에 灸하면 溫腎溫胃하니 둘 다 마땅하다.

(2) 反微喘者死：尤怡는 “灸하면 厥證이 회복되지 않고 오히려 微喘한다. 남은 陽이 上升해서 大氣가 下脫한다. 고로 죽는다.”라고 하였다.

(3) 少陰負扶陽者 爲順也：少陰은 足少陰腎의 動脈으로 太溪穴이다. 趺陽은 足陽明의 動脈으로 衝陽穴이다. 下利는 土가 制水하지 못하고 水가 도리어 侮土하는 病이다. 少陰負扶陽은 土勝하고 水負하여 脈에 好轉이 있으면 病에는 治癒의 氣機가 있는 것이다. 고로 順이라 한다. 吳謙은 “少陰負扶陽者 爲順也”라고 하였으니, 이 一句는 글의 의미가 맞지 않는다. 吳考槃은 “脫誤가 있는 것 같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에서는 脾腎虛衰로 인한 下利의 豫後를 논술하였다. 下利無度하고, 手足厥冷, 脈微欲絶하는데 이는 脾腎兩衰로 陽氣가 장차 없어질 상이다.

이때 비록 艾灸로 溫하게 하여도, 陽氣가 衰微하여 쌓인 것이 重하면 되돌리기는 어렵고 또한 艾灸라 하더라도 급한 때에는 陽氣가 恢復하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厥冷이 제거되지 않으면 이른바 ‘灸之不溫’이라한다. 이때에 轉歸하는 것은 들어 있다: 만약, 陽氣가 恢復이 안되고, 脈氣가 돌아오지 않으면서 또한 微喘하면 이는 腎陽이 衰微하고 腎不納氣하여 肺腎이 장차 脫할 것이므로, 陰陽이 장차 離絶할 危證으로 豫後가 不良하다; ‘少陰負趺陽’, 趺陽脈은 胃氣가 있다는 것으로 치유하는데 희망이 있다.

여기에서의 下利는 많은 注家들이 泄瀉로 풀이하고 있고, 그 病理機制를 보면 痢疾이 안에 있는 것과 포괄해서 비슷하다.

本條의 少陰負趺陽의 해석에 관하여서는 注家들은 대체로 아래의 관점으로 본다. 제1종은 ‘相克’으로 인식하는데 이는 趙以德이 대표이다: “무릇 趺陽은 胃脈土이다, 少陰은 腎脈水이다. 負는 克함이다; 만약 少陰이 趺陽에서 負를 받으면 이는 後天의 陽이 존재하고 陰寒이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順이 된다.”; 제 2종은 “負戴의 負”라는 의미로 이는 陳修園이 대표이다: “脈의 根源은 少陰에서 비롯되고, 趺陽에서 生한다. 少陰趺陽은 脈의 生始의 뿌리가 된다. 少陰脈이 이르지 않으면 趺陽脈도 나오지 않아서 少陰이 아래에 있으면 趺陽은 위(가운데)에 있다. 고로 반드시 少陰이 위로 합하면 趺陽에서 負하는 것은 戊癸가 相合하고 脈氣에 뿌리가 있게 되는데 그 負라 이름함은 어찌 그러한가? 負戴의 負와 같은 것이다”. 제 3종은 “勝負의 負”로 인식하는데 黃坤載가 대표가 된다. “少陰은 腎脈이고 趺陽은 胃脈이다. 胃土는 본래 腎水를 克하여 水盛하면 도리어 侮土를 얻는다. 土는 火에서 生하고 火에서 克함을 받는다. 火盛하면 土는 水를 克할 수 있게 되어 少陰이 負하며, 火가 敗하면 水는 도리어 侮土하여 趺陽이 負한다. 무릇, 病은 모두 水가 勝하여 土가 負하는 것인데, 土가 盛하여 水가 負한 것은 심히 적다. 水가 盛火하면 곧 죽게 되고, 土가 盛하면 살게 된다. 고로, 少陰이 趺陽을 負하는 것이 順이 된다.” 제 4종은 “尺脈에 뿌리가 있음”을 順證으로 인식하는 것인데 唐容川이 대표가 된다. “少陰의 脈은 이미

뿌리가 있고, 위로 趺陽의 脈을 생하는데 곧 尺脈에 뿌리가 있어 위로 關脈에 들어가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감을 말한 것이다. 原文에서는 足の 少陰, 足の 趺陽을 말했는데 나머지는 이것을 추측하면 되고, 尺脈이 점점 生하면 위로 關脈에 이름을 또한 이러한 논법과 같이 말한 것이다.” 제 5종은 “腎脈은 胃脈에 잠복하여 존재한다.”라는 인식이다. 『金匱要略譯釋』에서 “喘息이 아직 發하기에 앞서 少陰脈은 伏하여 보이지 않는데 마치 趺陽部에 胃脈에 이르기까지 보인다, 이 脈의 資始는 腎中의 陽에서 비롯되었으나 비록 負하나 資生하는 胃臟의 陽이 존재하니, 이는 곧 脈이 胃氣를 얻으면 사는 이치인 고로,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生機가 있으니 또한 만회의 여지가 있다. 소이 順이라 부르는 까닭이다.” 제 6종은 인식하길 “脫誤가 있는 것 같다”라고 인식이다. 吳考槃이 『醫宗金鑿』의 영향하에서 지출하길: “少陰負趺陽爲順이라는 한 구절은 위 文意에 속하지 않아 脫誤가 있는 것 같다.” 필자는 少陰脈이 趺陽脈에 비하면 弱하고, 또한 趺陽脈은 少陰脈에 비하면 有力하다는 설법에는 동의한다. 趺陽脈은 주로 脾胃를 살피며, 脾胃兩衰의 疔瘡하에서는 趺陽脈은 脈微欲絶의 ‘無脈’은 아니고, 胃氣는 오히려 좋은데, “胃氣가 있으면 生하고 胃氣가 없으면 死한다.”라는 말로 설명한다. 고로 말하기 ‘爲順也’라고 한다. 仲景은 下利 등의 소화계통의 질병에 대해서 先天의 작용을 중시하였고, 後天의 存亡을 강조하였음을 설명한다.

本條는 또한 『傷寒論』 厥陰病篇 362條에서 보인다.

『原文 11』

下利有微熱而渴 脈弱者 今自愈⁴

【解釋】

泄瀉하면서 微熱이 있고 渴하며 脈이 微弱한 경우에는 저절로 낫게된다.

【校勘】

① 而: 『脈經』 卷8 第14, 『翼方』 卷10에는 ‘其

人'이라 같이 되어있다.

4

【字句解】

(1) 今自愈 : 『經傳釋詞』를 보면 '今'에는 '則'의 뜻이 있다. 按 : 本條는 『傷寒論』에도 있다. 成無己의 『註解傷寒論』에서는 '令'字를 같이 썼다. 徐註本·尤註本·魏註本 등도 같다. 마땅히 고쳐야한다. 이는 下利를 앓는 자는 微熱而渴, 脈弱하면 服藥하지 않고서도 自愈하게된다. '則'이라 비교하여 풀이해도 의미는 더욱 명확해진다.

【考察】

本條에서는 陰寒下利가 곧 나올 때의 脈證에 대해 논술하였다. 虛寒下利한 症은 微熱, 口渴하는데 陽氣가 회복할 징조이다. 脈弱은 邪氣 또한 衰함을 표명하여서 脈證合參한다. 고로 病이 장차 저절로 나올 것임을 알게 된다.

發熱, 口渴이 어찌 陽盛이 아닌지를 아는가? 관건인 것은 '微'자이다. 發熱의 정도가 輕微하면 渴이 별로 심하지 않다. 만약 大熱 大渴하면 陽이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변하여 陽盛이 된다. 그밖에 陽盛의 脈象은 필연적으로 數大하고 有力하다. 지금 脈弱하면 "小則病退"이므로 陽盛이라는 진단은 분명히 성립되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邪退하면 陽이 회복되어 自愈할 것이라는 예단을 내리기에 충분한 이유가 된다.

일반적으로 下利때 發熱은 마땅하지 않다. 만약 초기에 大熱하고 渴하면 대부분 表裏俱病에 속한다. 혹은 裏熱이 過盛한 것이다; 無熱不渴은 대부분 陰證 혹은 虛證에 속하여 모두 저절로 낫지 않는다. 만약에 久利發熱하면 陰竭陽越에 속하는데 위험한 징조이다. 이것은 微熱하고 渴하며 脈弱한 것으로 바로 陰陽이 和하며 胃氣가 회복하거나 혹은 胃氣가 오히려 強한 것이다. 고로 나올 추세이다. 다만, 이런 종류의 下利는 필연적으로 下利가 輕微하고 病邪가 이미 사라진 것이므로 自愈할 가망이 있다.

『原文 12』

下利 脈數 有微熱 汗出 하면 今 自愈 設脈緊 이라도 爲未解

【解釋】

泄瀉하며 脈數하며 微熱이 있고 땀이 나면 저절로 나올 것이고, 만약 脈이 緊하면 아직 덜 풀린 것이다.

【校勘】

① 下利 : 寬政本에는 '下' 위에 '若'字가 있다. 『註解』도 같다.

② 有微熱汗出 : 『脈經』卷7第14, 『翼方』卷10에는 "若微發熱, 汗自出者"이 八字가 같이 쓰여 있다. 尤怡는 "微熱汗出者, 氣가 사방으로 뻗어 그 기세가 밖에 도달하는 것이다. 역시 나오려는 증후이다."라고 하였다.

③ 今 : 앞에서 말했듯이 '令'이라고 해야 맞다.

④ 設脈緊 : 按 : 本條는 『傷寒論』360條에도 나오는데 '脈'은 '復'으로 되어있다. 成註를 근거로 '設脈復緊'이라 하였는데 그 의미에 부합된다. 『脈經』, 『翼方』에도 '脈復緊'으로 되어있다.

【字句解】

(1) 脈數 : 尤怡는 "脈數은 陽이 회복된 것이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에서는 陰寒下利가 나오려고 하는 것과 아직 덜 풀린 것에 대한 脈證에 대하여 재론하였다. 本條의 下利微熱汗出과 위 條의 下利微熱而渴은 모두 陽氣가 恢復하려는 징조를 표시하였고, 위 條의 脈弱은 邪氣가 衰한 것이고 本條의 脈數은 陽氣가 恢復한 것이다(여기에서의 數은 마땅히 數而無力이다) 고로 마땅히 自愈할 것이라고 추측한다. 만약, 虛汗下利하고 脈에 緊象이 보이면 陰寒이 아직 盛하고 陽氣가 아직 恢復이 안 되었음을 표시한다. 곧 病이 아직 덜 풀렸음을 알 수 있다.

本證의 自愈의 病機에 관련하여서, 注家들은 대략 4종의 견해가 있다: 첫째는 "陽이 勝하면 熱은 밖을 좋아서 泄한다."라는 인식으로 徐忠可가 대표이다: "微熱이 있고 脈이 弱하지 않으며 數하는데 數은 陽이 勝한 것으로 다시 汗出하면 外泄할

것이다. 고로 이제 自癒할 것이다”; 둘째는 “陽이 勝하면 利는 止한다.”는 인식으로 魏念庭이 대표이다: “下利脈數에 微熱이 있음은 證과 脈이 相符하여 陽氣가 有餘함을 알 수 있다. 汗出하면 陽勝하고 陽勝則 氣勝하고 氣勝則 下降하여 利하지 아니하니 그 사람은 반드시 自癒함을 알 수 있다”; 셋째는 “表裏가 모두 調和롭다.”는 인식으로 程運來가 대표이다: “寒하면 下利하고 脈數하면 微熱이 있는 즉 裏寒이 去하면 汗出하고 表氣가 和하여 表裏가 모두 和하면 고로 自癒한다.”; 넷째는 “陽이 恢復하면 病勢는 外部에 도달한다.”라는 인식으로 尤在涇이 대표이다: “脈數은 陽이 恢復한 것이고 微熱汗出한 사람은 氣가 必야흐로 떨어져서 世력이 外部에 도달하여 나오려고 하는 징후이다.” 참고할 만 하다

本條는 또한 『傷寒論』 厥陰病篇 361條에서도 보인다. 그중 ‘設脈緊爲未解’句는 ‘設復緊爲未解’라 되어있다.

‘原文 13’

下利 脈數而渴 者^①는 今 自愈^② 設不差^③ 必 清膿血^④ 하니 以 有熱故也^⑤

【解釋】

泄瀉하며 脈이 數하며 渴한 경우에는 저절로 나을 것이요 만약 회복하지 않으면 반드시 大便에 膿血을 보니 熱이 있는 까닭이다.

【校勘】

① 脈數而渴 : 『脈經』 卷8第14, 『千金』 卷15第7 ‘渴’은 ‘浮’字와 같이 쓰여있다. 朱光被는 “脈數而渴은 양성지상이다. 下利하면 마땅히 저절로 낫는다.”라고 하였다.

② 今 : ‘令’이 마땅하다.

③ 必 : 『脈經』에는 ‘必’ 위에 ‘其人’ 二字가 있다.

【字句解】

(1) 設不差 : 朱光被는 “마땅히 낫지 않을 것을 낫게 하는 것이다. 陽氣가 盛하면 반드시 熱이 腑

의 陰을 傷한다. 그리하여 大便으로 膿血이 나온다.”라고 하였다.

(2) 清膿血 : 곧 便膿血이다. 『廣韻·十四清』에서 『釋名』을 인용하길 ‘清’은 祛濁遠穢의 의미가 있다. 대변은 濁穢을 배출하여 제거하므로 그 뜻을 끌어 퍼서 便이란 뜻을 가진다. ‘清’은 ‘圃’으로 쓰기도 한다. 실은 두 글자가 음도 같고 韻도 같다. 의미가 다르니 曲解할 수 없다.

【考察】

本條에서는 下利, 脈數, 口渴이 虛寒과 濕熱의 不同의 證型에서 나타나는 不同의 豫後에 대해서 논술하였다. 下利, 脈數, 口渴이 만약 脾胃虛寒證에서 보이면, 裏急後重감이 없는 清冷한 下利의 횡수는 줄어들며 脈은 細弱遲緩에서 數한 正常脈에 이르거나 혹 심하면 無力한 數脈에 이른다. 입은 不渴에서 渴하며 多飲하고 싶어하지 않거나 혹은 熱飲을 좋아하는데 陽氣가 恢復하려는 것을 보여주어 主病이 장차 自癒할 것이다; 下利, 脈數, 口渴이 大腸濕熱의 소치가 되면, 下利에 穢臭가 있으며 不爽하며 裏急後重, 脈數有力, 口渴喜飲하는데 곧 病이 낫지 않는 것이 아니고, 濕熱이 大腸에 內蘊하여 大腸의 傳導기능이 失司하여 通降이 不利하니, 氣血이 壅滯하여 腸道의 脂膜과 血絡이 모두 損傷되어 장차 膿血을 下利할 수 있다.

本條의 下利病機에 관하여 注家들의 견해는 같지 않다. 하나는, 陰寒下利하여 陽氣가 恢復하려는 것은 陽의 恢復이 太過하여 邪熱의 轉함이 甚하여 血絡을 作傷하여 下利膿血이 나타난다는 것이다(예로 『心典』, 高等醫藥院校教學參考叢書, 『金匱要略』 및 五版統編金匱教材 등); 하나는, 熱痢의 自癒機轉과 濕熱病疾의 병리적 轉化이다: 일반적으로 腸胃에 熱이 있어서 下利하게 되면 脈數而渴하는데, 이는 胃陽이 過旺하여 渴飲을 거쳐 胃腸의 熱邪가 풀려 自癒할 수 있다. 만약 낫지 않으면 氣分이 熱乾하며 血分에 과급되어 大腸絡脈을 損傷시켜 便膿血하게 된다.(예로 成都中醫學院編全國金匱師資班. 『金匱要略講考』, 王廷富. 『金匱要略指難』 등) 필자는 앞의 주장은 인체 정기의 陽氣와 病邪熱邪의 개념에 속하는 것이 섞여있다고 본다. 예로 五版統編金匱教材에 “만약 陽의 恢復이 太過하면 邪

熱이 되어 熱이 甚하면 반드시 陰絡을 傷하여 반드시 膿血을 본다.”라고 하였다. 正이면 正, 邪는 邪, 正邪의 사이에 어찌 이와 같은 가변이 바뀌는 ‘角色’ 전환이 가능하겠는가? 하물며 또한, 本證의 下利는 곧 陰寒下利인데 이는 본디 신체가 이미 陽氣가 不足하여 이때에는 陽氣가 恢復하려고 하는 것인데, 어찌 陽虛의 신체가 변하여 陽亢하는 신체로 변하겠는가? 두 번째 견해 또한 胃陽이 過旺하면 嘈雜易飢, 大便秘結로 많이 표현되어 이는 熱結旁流하는 實熱의 ‘下利’임을 설명하지 않았고, 또한 어찌 飲水를 거치면 自癒할 수 있겠는가? 膿血을 利下하는 동시에 마땅히 痢疾의 범주에 속함이 마땅하고, 痢疾의 病機는 혹 濕熱로 인하거나 혹 寒濕으로 인한 것인데, 한개의 濕字도 不離한 데 여기에 ‘濕’은 또한 어디에서 왔는가?

本條는 또한 『傷寒論』厥陰病篇 367條에서도 보인다.

‘原文 14’

下利 脈反弦 發熱身汗者 自愈^①

【解釋】

泄瀉에 脈이 도리어 弦하고 發熱하며 몸에 땀이 나는 경우는 저절로 낫게 된다.

【校勘】

① 自愈：徐註本·尤註本·魏註本 모두 ‘自’字가 없다. 按：‘自’字가 있으므로 해서 의미가 더욱 명확해진다. 『千金』에도 역시 ‘自’字가 있다.

【字句解】

(1) 脈反弦：‘反’이라는 것은 下利가 나오려고 하는데 脈이 그것에 應하지 않고 弦이라는 말이다. 다만 만약 지금 弦의 脈象이라면 이는 陽이 다하여 장차 회복하려는데 겹하여 發熱汗出이 나타나 안의 邪氣가 다하여 表에서 부터 解하는 것을 설명한다. 尤怡는 “弦脈은 陰陽 모두 속한다. 만약 發熱과 身汗이 함께 나타난다면 弦 역시 陽이다. 脈數 有微熱 汗出’ 과 똑같다. 고로 낫는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에서는 陰寒下利하여 장차 나올 脈證을 재론하였다. 陰寒下利는 裏證에 속하여, 脈은 본래 沈한데, 지금은 脈이 沈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弦 脈이 보여 고로 反弦이라 하였다. 弦脈은 비교적 沈細하고 脈은 有力洪大하다. 또한 發熱身汗이 보인다는 것은 여기에서 일종의 陽氣가 恢復하려는 象인 것이다. 여기에서의 發熱은 아울러 體溫의 올라감을 일정치 않게 지적하였고, 陽氣不足하여 惡寒증상은 부정하였다. 곧 惡寒이 減輕하거나 혹 不惡寒하거나 심지어는 全身에 일종의 따뜻한 舒適감이나 全身에 少汗이 나타나는 것이다.

本條의 나오려는 脈證의 病機의 해석에 관하여 注家의 관점은 같지 않다. 하나는 本條의 下利는 表邪가 內陷한 소치로 말미암아 여기에서의 弦은 마땅히 浮弦하다는 것을 제출하였다. 弦은 少陽을 主하여 生發之氣가 있으며 發熱은 새로이 表邪를 感하여 全身에 汗出하는데 熱은 寒을 따라 풀리고, 下利는 이것을 따라 낫는 것이다(예로 成都中醫學院編全國金匱師資班. 『金匱要略講考』, 王廷富. 『金匱要略指難』등); 하나는 脈不沈而弦은 陽氣升發의 象이고 아울러 發熱身汗은 모두 陽氣가 恢復하고, 榮衛가 조화로움을 主로 한다는 것이다(金匱玉函經二注, 金匱要略方論本義, 高等醫藥院校教學參考叢書. 金匱要略 및 五版統編金匱教材등). 필자는 인식하길 앞의 의견은 억측으로 판단함을 면하기 어렵다. 생각해보면, 表邪內陷하여 下利가 나타나면, 裏陽의 不足함이 심함을 알 수 있다. 이때에는 마땅히 “급히 속을 구하여야 한다.” 또한 脈 弦汗出하는데 어찌 自癒하리라는 판단이 나오겠는가? 두 번째 의견은 겸허하고 극히 간단하여 초학자들이 묘지를 난규하기 바란다.

‘原文 15’

下利氣者 當利其小便^①

【解釋】

泄瀉하며 방귀를 끼는 경우에는 마땅히 小便을 잘 보게 하여야 한다.

【字句解】

(1) 下利氣 : 下利氣 이것은 下利를 主症으로 한다. 篇 끝에 ‘氣利’라 함은 訶梨勒散과 같지 않다. ‘氣利’는 오래 설사를 하여 氣가 陷하여 滑腸하는 것이다. 矢氣가 主가 되고 大便도 따라서 나오는데 이 두 증상이 다름이 있다. 治법은 下利氣는 應당 利小便해야하고 氣利하면 應당 收斂해야한다. 高學山은 “이것은 氣利 와 같지 않다. 下利氣는 水泄下利하는 것이고 失氣를 겸하는 것을 일컫는 말이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는 脾虛濕困으로 氣機가 막힌 下利氣의 治法에 대해 논술했었다. 脾虛濕困으로 인해 大便이 溏泄하고; 濕阻氣機로 인해 腹脹이 窶痛하고, 방귀를 끼니 편안하고, 또 氣滯勝腑가 열릴 때에, 下利之機가 빈틈을 타서 外泄하니, 下利氣라고 한다. 治法은 마땅히 利小便法을 사용하여 ‘利小便以實大便’하여 分利水濕하면, 小便이 利하고 濕邪가 제거되니 氣機가 通暢하게 하여, 腸道가 조화되어 下利가 그치고, 氣가 제거됨을 알 수 있다. 지적해야 될 것은, 여기의 利小便法은 健脾利濕, 溫中利濕의 의미로, 그리하면 小便이 利하고 大便을 實하게하며, 방귀가 제거되는 것이다.

「原文 16」

下利 寸脈 反浮數 尺中自澀 者 是必 清膿血 也

【解釋】

泄瀉하며 寸脈이 도리어 浮數하고 尺脈이 澀한 경우에는 반드시 大便에 膿血이 있게된다.

【校勘】

- ① 下利 寸脈 : 『千金』卷15 第7에는 ‘脈’위에 ‘寸’字가 없다.
- ② 者 : 『脈經』卷8第14, 『千金』에는 모두 ‘者’字가 없다.
- ③ 必 : 『脈經』『千金』에는 모두 ‘必’위에 ‘其人’二字가 있다.

【字句解】

(1) 反浮數 : ‘反’은 속어로 ‘反倒’이다. 下利는 裡證이 많은데 脈은 거기에 應하지 않고 浮하다; 下利는 裡證이 많은데 脈은 거기에 應하지 않고 數하다. 마땅히 보여서는 안되는 脈이 보이는 고로 ‘反’이라 한다.

(2) 尺中自澀 : 魏荔彤은 “澀은 陰虛熱盛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3) 清膿血 : 尤怡는 “寸浮數은 陽邪가 강한 것이다. 尺中澀은 陰氣가 弱한 것이다. 強陽에 弱陰이 더해져 반드시 膿血을 보게 된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는 濕熱痢疾의 脈證에 대하여 논술했었다. 下利와 脈寸部浮數, 尺中自澀에 근거하여, 이것이 痢疾인 것과, 膿血이 나와서 풀림을 판단할 수 있다. 이것은 왜냐하면 본편의 下利는 泄瀉와 痢疾의 두 가지 질병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泄瀉는 대부분 裏證에 속하며, 脈은 마땅히 沈하다; 泄瀉는 대부분 虛寒에 속하며, 脈은 마땅히 遲하다. 그러나 여기의 脈은 沈遲하지 않고 오히려 浮數하므로, 이 下利는 虛寒泄瀉가 아니라 濕熱痢疾임을 알 수 있다. 즉 『醫學讀書記』에서 말하는 “泄瀉는 대다수 寒濕에서 생기며, …… 裏病은 대다수 濕熱로 이루어진다. …… 비록 泄瀉 또한 熱證이 있으나, 마침내 寒이 熱보다 많고, 裏病 또한 寒證이 있으나, 마침내 熱이 寒보다 많다.” 동시에, 下利病의 浮數이 關部에서 보이기 않고, 寸部에서 보인다면, 이 下利는 新感時邪로 말미암아 內蘊臟腑에서 이르게 한 것이니, 尺中自澀은 下利의 病변이 腸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腸이 傳導를 상실하여, 通降不利가 되고, 氣血이 壅滯되어, 脂膜과 血絡이 모두 損傷을 입으므로, 利下에 赤白膿血이 나타나는 것이다. 여기 下利의 특징을 지적할 것은 利下膿血, 赤白夾雜, 稠粘氣臭, 腹脹腹痛, 裏急後重, 肛門灼熱, 동시에 小便이 잠시 赤色을 띄며, 口乾苦粘, 혹은 惡寒發熱, 舌苔黃膩, 脈象滑數등의 脈證이 나타난다.

本條의 寸脈浮數에 관해서는, 尺脈澀의 해석에 대해 注家들의 견해는 같지 않다. 첫 번째 관점은, ‘陰陽氣血不和’이다. 趙以德이 말한 것과 같이: “寸

脈浮數은, 곧 陽이 위에 盛하며, 아래에서 陰과 和하지 않는 것이다. 陰은 血이며, 血은 氣와 더불어 和하지 못하니, 즉 不榮經이며, 肝에 藏하지 않으니, 즉 腸胃에 散入하고, 그러므로 尺脈澁하며, 血이 모여 膿血이 되는 것이다¹⁾; 두 번째 관점은 ‘有餘와 不足’이다. 程運來가 말한 것과 같이: “寸脈浮數은 熱이 有餘하여 寸脈은 自澁하니, 血이 不足하고, 熱이 有餘하여, 挾熱이 膿血로 변하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은 ‘陽強陰弱’이다. 陳修園이 말한 것과 같이: “下利는 寒에 속하니, 脈이 마땅히 沈遲한다. 그러나 지금의 寸脈은 반대로 浮數하니, 그것의 陽이 強함을 알 수 있고, 尺中自澁은 그것의 陰이 弱함을 알 수 있다. 陽이 強하고 陰이 弱하니, 반드시 膿血이 나올 것이다.”; 네 번째 관점은 ‘熱陷血分’이다. 『醫宗金鑒』에서 “下利는 裏病으로 浮數의 表脈을 얻으면 도리어 脈이 浮數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尺中自澁이면, 熱陷血分을 알 수 있으니, 반드시 膿血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비록 모두 자기의 이론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추상적인 말들이며, 오직 『金鑒』의 論이 비교적 임상과 가깝다. 成都中醫學院編全國金匱師資班에서 편찬한 『金匱要略講考』에서 역시 말하기를: “寸脈은 肺氣가 주인이니, 肺는 大腸과 서로 合하고, 浮數之脈은 寸部에 있으니, 氣分이 熱盛하다; 澁脈이 尺中에 있고, 下利病이 변하여 腸에 있으니, 熱毒이 腸臟絡脈을 傷하게 하므로, 膿血이 된다. 澁脈은 『金匱』의 原文 중에서, 일반적으로 精血의 不足을 지칭한다. 여기에서는 血分의 損傷으로 보기도 한다. 尺中自澁은 大腸陰絡의 損傷을 말한다. 熱毒에 걸리면, 氣鬱血滯가 되어, 氣血이 不和하여, 熱壅이 腸에 있으므로, 膿血이 되는 것이다.”

本條는 또한 『傷寒論』厥陰病篇 363條에서 보인다.

‘原文 17’

下利清穀은 不可攻其表니 汗出하면 必脹滿²⁾이라

【解釋】

소화되지 않은 곡식을 설사하는 경우에는 표를

공하는 것은 불가하니, 땀이나면 반드시 창만이 생긴다.

【字句解】

(1) 不可攻其表: 下利清穀은 脾胃가 虛寒하고 腎陽이 蒸化하지 못한 것의 표현이니 종종 惡寒의 症狀이 나타나 攻表할 수 없고 이에 外感으로 오인하면 안 됨을 보여주는 것이다.

(2) 汗出必脹滿: 程林은 “寒은 殺穀하지 않는다, 寒勝하면 清穀을 下利한다. 만약 表를 攻하면 胃中의 陽氣가 더욱 虛해진다. 寒은 더욱 甚해서 脹滿이 生한다.”라고 하였다.

【考察】

本條는 虛寒下利의 治禁에 대해 논술하였다. 여기의 下利는 역시 泄瀉를 말하며, 清穀은 大便의 澄澈清冷하고 完穀不和한 것이다. 下利清穀은 脾(혹은 脾腎)의 陽이 虛해서 생기는 것으로, 腐熟하지 못하고, 小腸이 受盛하고 大腸이 傳導기능을 상실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그러므로 치료는 당연히 健脾溫腎, 運中化濕의 방법을 써야 한다. 裏虛가 비교적 급한 상황에서 表證을 끼고 있으면 본래 ‘急者先治’의 원칙에 따라, 先溫其裏해야 한다. 즉 『金匱』臟腑經絡先後病篇 14條: “病, 醫下之, 續得下利清穀不止, 身體疼痛者, 急當救裏, 後身體疼痛, 清便自調者, 急當救表也” 만약 잘못 表를 공격하면, 陽을 더욱 虛하게 할 수 있고, 陰寒이 더욱 勝하며, 腹部脹滿의 증상을 증가 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內經』에서 말하는 ‘臟寒生滿病’이 바로 이것이다.

虛寒下利가 만약 表證을 끼고 있지 않으면, 더욱 汗法으로 치료할 수 없다. 『會藥醫鏡』에서는 暴瀉, 久瀉가 안에 있을 때의 열 가지 치료법이 포함되어 있다: 하나는 淡滲, 하나는 升提, 하나는 清涼, 하나는 疏利, 하나는 甘緩, 하나는 酸收, 하나는 燥脾, 하나는 平肝, 하나는 溫腎, 하나는 固澁이다. 이중 汗治는 한 가지도 없다.

본조는 『傷寒論』厥陰病篇 364條에도 나와 있다.

‘原文 18’

下利¹ 脈沉而遲² 하고 其人面少赤³ 身有微熱⁴ 下利清穀者⁵ 必鬱冒⁶ 汗出而解⁷ 病人⁸ 必微厥⁹ 이라 所以然者¹⁰ 其面戴陽¹¹ 也 下虛故也¹² 이라

【解釋】

泄瀉에 脈이 沈遲하고 얼굴이 약간 붉고 몸에 微熱이 있고 소화안된 곡식을泄瀉하면 반드시 鬱冒가 되니 땀이 나게 되면 풀린다. 이러한 경우에 病人은 반드시 微厥하니 그러한 이유는 얼굴에 戴陽하니 아래가 虛한 까닭이다.

【校勘】

- ① 下利清穀者…下虛故也：『脈經』卷八第十四에서 下利以下 二十八字는 별도로 一條를 이루었다, 마땅히 그것을 따른다.
- ② 病人：『脈經』『翼方』卷十에 아울러 ‘其人’이라 하였다.
- ③ 必：『翼方』에는 이 字는 없다.
- ④ 微厥：元刊本·明刊本·趙刊本·俞橋本·清初本·吉野本·寬保本·寬政本·享和本에는 모두 ‘微熱’이라 하였다; 寬保本에서 “熱’은 ‘厥’이라 하였다.”라고 하였다.

【字句解】

- (1) 下利, 脈沈而遲：高學山은 “遲는 곧 虛가 되고, 寒이 된다. 沈은 곧 裏에 있고, 下에 있다. 沈處에 遲가 보이므로 바로 裏虛下寒으로 진단된다. 고로 下利清穀한다.”라고 하였다.
- (2) 面少赤：喻昌은 “陰寒이 格陽于上하므로 面少赤한다.”라고 하였다.
- (3) 鬱冒：頭目昏沈을 말한다. 혹 眩暈과 비슷하다.
- (4) 而解：解는 病이 나았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鬱冒가 잠시 緩解하는 것과 유사함을 말하는 것이다. 本條는 『傷寒論』 365條에서도 아울러 보인다. 舒詔가 “汗出而解’ 이 四字는 잘못됨이 있다. 戴陽症은 裏陰이 盛하고 위에서 格陽한 것으로 汗出을 가장 꺼리는 것인데, 汗出하면 陽散할 것이고, 어찌 汗出而解라 말하겠는가?”라고 하였다.
- (5) 戴陽：面部가 紅潮한 것으로, 虛陽이 上浮時

이러한 假熱현상이 출현할 수 있다.

【考察】

本條는 虛寒下利의 治禁에 대해 계속적으로 논술했다. 下利清穀하고 脈象沈遲한 病機는 上條와 동일하며, 또한 脾胃陽虛로 비롯된 것이다. 동시에 陰寒內盛하여 格陽于外하여 이로 인해 화장한 듯 面紅하며, 몸에 微熱이 있게 된다. 虛陽上浮하면, 頭昏目眩, 鬱悶不舒한 鬱冒症이 나타나게 된다. 이때 반드시 通脈四逆과 같은 종류를 써서 回陽救逆해야 한다. 만약 “面少赤, 身有微熱”을 表證으로 잘못 오해하여, ‘汗出而解’로 보아, 汗法을 妄用 한다면, 陽이 더욱 虛해지고, 陽欲脫絶 하여, 微厥에 이르게 된다. 그러므로 汗法을 금지하는 것은, 이 병의 “面少赤 身有微熱”은 하나의 허양상부의 戴陽證 이며, 이러한 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신비의 양허하여 陰寒內盛하니 이른바 ‘下虛故也’라 말한다.

본조문의 “面少赤, 身有微熱”에 관해서, 注家들은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表邪를 겸하고 있다고 여기는데, 이것은 안이 虛하기 때문에, 鬱冒하며 汗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다; 또 하나의 관점은, 虛陽이 위와 바깥으로 被格되서 虛할 뿐이며 盛하지 않고, 藏하나 움직일 수 있다, 그러므로 鬱冒하여 땀이 나와 없애 주는 것이다. 전체적인 條文의 내용을 봤을 때, ‘其面戴陽’은 ‘面少赤’을 지칭하고, 陽氣가 不足해서 이미 바깥으로 格陽되고, 虛陽上浮의 지경까지 이른 것이다. 이러한 증상은 위의 條文 보다 危重한 것으로, 이때 비록 ‘身有微熱’은 外邪가 밖에 있는 것이지만, ‘汗出而解’의 이론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 만약 바깥에 表證이 없고, 오직 陽만 虛하면, 더더욱 ‘汗出而解’를 사용하면 안 된다. 그러므로 만약 의사가 잘못 이해하여 “其人面少赤, 身有微熱”은 外邪가 바깥쪽에 있는 것이고, ‘汗出而解’의 汗法으로 치료했을 경우, 陽은 더욱 虛해지고, 陽氣는 外脫 하여, 즉 ‘其人必微厥’하게 된다.

‘原文 19’

下利後¹ 脈絶² 하고 手足厥冷³ 이며 晷時脈還⁴ 하면 手足溫者⁵는 生

하고 脈不還者는 死라

【解釋】

泄瀉後에 脈이 絶하고 手足厥冷하며 一晝夜를 지나서 脈이 돌아오면 手足이 溫한 경우에는 살고 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죽는다.

【校勘】

① 脈絶 : 『玉函』卷四, 『病源』卷七에는 ‘脈’위에 ‘其’字가 있다.

② 手足厥冷 : 尤怡는 “이는 陰이 먼저 渴하고 陽이 후에 脫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또한, 『翼方』卷十에는 ‘厥’ 아래에 ‘冷’字는 없다.

③ 脈 : 『玉函』『翼方』에 이 字는 없다.

④ 不還 : 『玉函』『千金』卷十五 第七에 ‘還’아래에 ‘不溫’二字가 있다. 보충을 하면, 위의 ‘手足溫’과 상하 상합한다. 成無己는 “脈이 나타나는 것은 陽氣가 회복되어 生하는 것이고; 만약 手足이 不溫하여 脈不還하면 陽氣는 絶하여 死한다.”라고 하였다.

【字句解】

(1) 晬時脈還 : ‘晬’는 『集韻·十八隊』에: “晬時는 周時이다.” 즉 脈이 끊어질 때에 24小時에 일어난다.

【考察】

本條는 虛寒下利의 豫後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 논술했었다. 虛寒下利 후에 脈伏하여 보이지 않고, 手足이 厥冷하면, 陽氣가 衰渴한 징후이니, 병정이 凶險하므로, 좋거나, 나쁜 두 종류로 나뉜다. 만약 豫後를 판단한 후 하루 안에 脈氣가 회복되고, 手足이 따뜻해지면, 生還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고, 없으면 豫後가 좋지 않을 것이다.

본문 중의 ‘晬時脈還’의 해석에 대해, 注家들은 서로 다른 관점들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관점은 “氣血이 잠시 쉬는 것”이다. 趙以德이 말한 것과 같이: “脈은 氣血의 候가 되는데, 下利에 脈絶하여 不惟無陽이면, 또한 無陰이며, 氣血養神者 이다. 氣血이 亡하면, 그 脈이 絶하게 되어, 晬時에 회복하여, 手足이 따뜻하고, 이때 氣血이 잠시 쉬는 것

을 볼 수 있어, 고로 生 이다; 脈이 돌아오지 않고, 계속 亡해있으면, 고로 死 이다. 소위 生이란, 치료하지 않아도 自生하는 것이 아닌, 氣血을 救하는 것이며, 利를 멈추게 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점은 “經氣가 一周를 순환하는 것”이다. 尤在涇이 말한 것과 같이: “下利후 脈絶하고, 手足이 厥冷한 자는, 陰이 먼저 渴한 후 陽이 후에 脫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반드시 晬時에 經氣가 一周하는 것을 기다려 脈이 돌아오는 것이다”: 세 번째 관점은 “陰陽이 五十度を 순환한다.”이다. 陳修園이 말한 것과 같이: “脈은 中焦에서 生하여, 中焦부터 手太陰에 注하여 足厥陰에서 마치고까지, 行陽은 25度, 行陰도 25度, 水下 百刻一周하니, 50度を 순환하는 것이므로, 太陰에서 다시 만나니, 고로 돌고 돌지 않음은 晬時에 이것을 볼 수 있다.”; 네 번째 관점은: “陰陽이 相生하면, 陽이 회복하면 脈도 돌아온다.”이다. 章虛谷이 말한 것과 같이: “厥冷하여 脈絶하는 것은, 陽陷不能出이다. 晬時者는 周12時이며, 子午陰陽의 相生이다. 만약 脈이 회복되어 手足이 따뜻해지면, 陽이 회복되고 生한 것으로, 만약 회복되지 않으면 陽은 반드시 死한 것이다.” 필자가 보기엔 晬時란 대강의 시간이지, 1周時의 說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만약 脈絶하고 肢冷하는 것이 少時에 다시 돌아온다면, 어찌 또한 주된 豫後가 더 좋아지지 않겠는가? 소위 經氣循環一周說, 陰陽循環50度說 등, 비록 보기에는 이치가 있지만, 실제적으로 파악하기는 매우 어렵다. 脈絶이 다시 돌아오는 機理에 관련하여 그 下利가 急하고 暴瀉인지 추측할 수 있다. 津液이 驟泄하고 陽氣가 일시적으로 脫絶하니, 적극적인 치료가 있어야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陽氣가 다시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錢天來가 『傷寒溯源集』에 또 말하기를: “寒邪下利이며 六脈이 이미 絶하여 手足이 厥冷할 때, 更生의 原理가 없고, 仲景이 말한 晬時脈還하여 手足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 무릇 利에는 新舊가 있고, 만약 久利하고 脈絶하여 手足厥冷에 이르면, 즉 陽氣가 점점 虛하여 山窮水盡까지 이르고, 陽氣가 減하고 다하여, 脈氣가 絶하면, 어찌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오직 暴注下泄로 갑자기 驟利를 얻어 厥冷脈絶한 자가, 眞陽이 아직

갑자기 絶한 것에 이르지 않으니, 일시적으로 暴寒所中하여 厥利하고 脈伏하여도 眞陽이 아직 갑자기 絶한 것에 이르지 않았으므로, 陽氣가 돌아올 기약이 있다. 이 條文은 寒中厥陰은 久利가 아니며, 그러므로 晬時脈還할 때에 手足이 따뜻한 사람이 생길 수 있고, 만약 脈이 돌아오는 것이 보이지 않으면, 그것은 孤陽이 이미 絶하여 死한 것을 의미한다.”라고 하였다.

本條는 또한 『傷寒論』 厥陰病篇 368條에서도 보인다.

1984.

7. 陳紀藩 主編, 金匱要略, 北京, 人民衛生出版社, 2002, pp. 567~615.

IV. 結 論

『金匱要略·嘔吐噦下利病脈證治』에서 歷代 注家の 註釋과 결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嘔吐의 病機는 여러 원인으로 胃失和降하여 胃氣가 上逆한 것이다. 辨證을 하게 되면 水飲內停의 嘔吐와 先嘔却渴者는 欲解한다. 先渴却嘔者는 水停心下한다. 嘔家不渴者는 心下에 支飲이 있다.

2. 噦은 곧 呃逆으로 治則으로는 實證에는 腑氣上衝으로 야기 되었을 때 그 前後를 살펴 어느 곳에서 不利한가 알게 되면 利시키면 좋아진다.

3. 下利는 泄瀉와 痢疾을 포함한다. 이는 脾胃運化가 안되어 傳導기능을 잃은 것으로 治則은 下利氣는 脾虛濕困하여 氣機가 막혀있을 경우에는 마땅히 利小便시키면 된다.

參 考 文 獻

1. 吳謙, 醫宗金鑑·訂正仲景全書·金匱要略注, 人民衛生出版社.
2. 丹波元簡, 金匱玉函要略輯義, 人民衛生出版社.
3. 김정범, 金匱要略辨釋, 한의문화사, 2000.
4. 전국한의과대학 비계내과학교수, 脾系內科學, 서울, 그린文化社, 1991.
5. 郭霽春·王玉興, 金匱要略校註語譯, 北京, 中國中醫藥出版社, 1999, pp. 215~242.
6. 張機, 仲景全書, 서울, 大星文化社 影印出版,